

## 벤처 역사, 10년의 교훈

글 \_ 김명수(매일경제 기자)

1995년 여름 서울 역삼동에 자리 잡은 벤처기업연구회 사무실. 당시 중소기업계를 취재하던 기자는 이 연구회를 방문한 뒤 깜짝 놀랐다. 그 연구회는 중소기업계에 활력소를 제공할 새로운 '비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을 최우선 문제로 꼽고 있었다. 기술은 있었지만 당장 매출을 올리지 못해 자금난으로 자살하던 대표들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던 때였다. 이 때문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던 시기였다.

그때 이 연구회에서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벤처기업-벤처캐피탈-주식시장 등 삼각축을 기초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자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1995년 겨울, 이 비법을 실천할 새로운 조직이 탄생한다. 12월 그 연구회 소속 벤처기업 대표단들과 각 지역별 조직이 출범시킨 벤처기업협회가 바로 그것이다.

실천은 바로 다음해부터 시작된다.

벤처창업 로드쇼가 대표적이다. 젊은 엔지니어 출신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대학이나 연구소를 돌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였다. 당시는 '벤처'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기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 신문사로 "벤처가

뭐니까"라며 문의하는 전화가 오는 시대였다.

그러나 로드쇼는 조용했던 대학이나 과학기술연구소의 '핵폭탄'이었다. 젊은 학생이나 과학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일대 열풍을 불러왔다.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도 그 열기에 놀랐다. 이 때문에 제도적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했다. 벤처기업의 젖줄인 장외주식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출범시켰다. 벤처기업 특별지원법도 제정됐다. 이 모든 게 당시 벤처 열기를 반영한 셈이다. 특히 1997년부터 대기업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벤처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갔다.

벤처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기는 지나고 벤처가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벤처에도 한파가 닥쳐온다. 그러나 한파도 일순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꼽힌 대기업들의 대안으로 벤처가 또다시 부각된다. 위기가 바로 기회였던 셈이다. 당시 벤처기업협회를 주축으로 협회 임원들은 '지식 새마을운동'이라고 불리는 실험실 창업운동도 펼친다.

창업 로드쇼와 함께 '실험실 1창업운동'을 벌였다. 이는 바로 벤처기업협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벤처비전 2005'와 연계된 사업이다. 벤처비전 2005는 1995년 말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면서 10년 만인 2005년께 4만 3000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자

# e10 Anniversary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혁신적인 시도를 거듭하며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벤처의 위상은 많은 벤처인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에 지난 10년의 궤적을 재조명하고 벤처 역사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는 비전이다.

그 결과 대학은 물론 정부출연 및 일반 대기업연구소에서도 실험실 벤처가 잇따라 나왔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SNU프리시전, 마크로젠 등이 대표적인 실험실 벤처기업들이다. 최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상당수 상장사들도 당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한컴살리기 운동, 인터넷코리아, 10만 웹마스터 양성운동 등...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기로 하면 끝이 없다. 벤처투자 열기가 불면서 코스닥시장도 활황을 보였다.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이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을 앞지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거품논쟁이 일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495만원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 대주주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벤처의 탈을 쓴 술한 기업인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벤처기업 이미지가 탈색됐다. 심지어 '반(反)벤처정서' 까지 등장했다.

2000년을 넘기면서 미국 나스닥시장을 주축으로 한 IT투자 열기도 식어갔다.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닥시장도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다. 거품이 꺼져가면서 손해를 본 투

자들도 등장했다. 벤처에 대한 불신도 깊어갔다. 2001년부터는 세상의 관심이 멀어졌고 2004년까지 벤처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간다.

하지만 부단한 자성과 유망 벤처기업의 잇단 등장에 따라 벤처는 재도약하는 기회를 갖는다.

주식시장도 벤처기업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이 최근 70조원을 넘어섰다. 선진주식시장에 포함된 포르투갈 주식시장의 60조원대를 앞지른 것이다.

특히 올 들어 11월까지 코스닥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벤처기업 쫓돌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과거엔 IT벤처들이 각광을 받았지만 요즘은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관심이다. 그만큼 바이오벤처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5년 전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다. 과거 IT벤처 붐 때 많은 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지금의 IT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다시 한번 얼룩졌던 과거의 진절을 밟는다면 후배 벤처기업들의 희망을 꺾을 수도 있다. 이를 막는 방법도 벤처기업들의 몫이다.

과거 10년이란 벤처 역사의 교훈이다.